

# 인문지리학 세미나 토론문

## 8장 – 페미니스트 지리학

- 일상생활 속 공간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 저번 주 토론 당시 나왔던 “주방”과 관련된 공간도 아직은 차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싱크대가 여성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등)
  - ✓ 2019 년 bbc 뉴스 코리아에서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없는 것을 예로 “서울시민이 좁은 성차별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sup>1</sup>, 2023 년 광주시에서 22 억원을 투자해 육아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처럼 여성과 자연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것이 본질주의적 시각이라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 비판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페미니즘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여성과 자연을 연관지어 설명하려는 시도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성 역할을 타고난 것(자연)으로 고정시키며, 성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약일 수도 있지만, 에코페미니즘이 부정하는 가부장제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어떤 학문 분야들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문학, 인류학, 도시학, 미디어학 등)
  - ✓ 토론문을 쓰면서 처음 알게된 학문인데 퀴어지리학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성애 규범이 어떻게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지, 퀴어의 공간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sup>1</sup> <https://www.bbc.com/korean/news-50863187>

등의 공간이 성적 규범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연관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페미니스트 지리학, 여성지리학과 여성에 대한 지리학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 남성 연구자들은 여성(에 대한) 지리학을 연구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 ✓ 만약 연구를 한다면 저도 해당되는 주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자라 오면서 부모님을 보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 역시 현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9장 -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너머

강석영 선생님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고지도" 토론 내용에서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지도는 현대 지도만큼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지만, 해당 시기의 지역적 특수성과 국가적 위상 등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도가 재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신거라 생각이 듭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예로 들어 생각해봤습니다. 강리도는 역대 국가의 수도를 지도에 담고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나간 왕조의 수도를 포함시켜 시간을 축적해 지도에 표현해 재현해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텍스트를 통한 재현"의 관점이 고지도를 통해 새로운 활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10장 - 포스트구조주의 지리를 향하여

최경현 선생님은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를 푸코의 담론 이론으로 바라봤습니다.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을 나눠 편을 가르고,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각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본질적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효용성을 위해 특정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재현된 결과"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가진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지역감정 조장 등의 문제점도 아직까지 지역주의가 남아있게된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 부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주의 담론의 해체가 주장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실현하기 힘든 난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

로 “방법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적 해결책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약의 탈지역화, 지역주의적 보도 규제 등”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정책적인 해결보다 콘텐츠 개발을 통한 해결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 2024년에 영호남 지역의 문화 교류와 상생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열렸는데, 이런 연합축제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호남 문화대축전은 경쟁 성격의 축제는 아니지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친선 정기전(연고전,고연전)과 같은 성격의 콘텐츠가 추가되면 지역간의 경계가 두 대학교와 같이 얇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젊은 세대의 인식 전환을 위해 유튜브, 웹드라마 등을 통해 영호남 교류 콘텐츠(숏폼 영상, SNS 챌린지 등)를 제작해 방영하는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영향받기 쉬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부정적인 지역감정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통한 접근이 정책보다 강제성도 약하고,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지역주의 담론은 정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탈정치화를 시도하기위해 기존에 접근했던 방식과 다르게 다가가야 지역주의 담론 해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